

두산
인문극장

2026

5.27-6.14

신분류학
New Taxonomy

원칙
Principle

by Kwok Wing Hong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 | |
|------|---|
| 2026 | 신분류학 New Taxonomy |
| 2025 | 지역 LOCAL |
| 2024 | 권리 Rights |
| 2023 |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
| 2022 | 공정 Fairness |
| 2020 | 푸드 FOOD |
| 2019 | 아파트 Apartment Nation |
| 2018 | 이타주의자 Altruist |
| 2017 | 갈등 Conflict |
| 2016 | 모험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
| 2015 | 예외 例外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
| 2014 | 불신시대 The Age of Distrust |
| 2013 |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Big History From Big Bang to Big Data |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나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22년 7월이다. 이전에 우주를 관찰하던 허블 망원경에 비해서 100배의 능력을 갖춘 이 망원경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우주 탄생 초창기부터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이론에는 이 시기에 블랙홀은 없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블랙홀이 많이 발견되었다. 우리가 포함된 우주를 이해하려면 이론을 뒤엎고 새롭게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주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다고 문제가 그냥 풀리진 않는다. 국경은 흔들리고 힘의 간섭은 국경을 넘는다. 약자에 대한 배려, 함께 누리는 번영, 분쟁 없는 평화 같은 가치들은 휴지통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들도 모두 도전 받고 있다.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 새롭게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분류는 완전할 수도 없고, 기준도 임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계는 깔끔한 법이 없고 에너지가 넘친다. 시간이 흐르면 쉽게 빛도 바랜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분류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경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경계를 다시 그어보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안주해 온 문명,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과학의 근본적인 지형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그 속에 동지를 둔 생명과 인간, 그들이 이룬 사회적 약속의 변화까지 새로운 분류학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접근해 볼 예정이다.

강연

연강홀

| | |
|--|------|
| 문명과 야만 사이의 한국: 정체성에 대하여 김영민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4.6 |
| 생물과 무생물: 경계를 허무는 생명과학의 시대 이준호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4.13 |
| 포스트휴먼 경제학: 사라지는 인간, 드러나는 비인간 이동신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4.20 |
| 서양과 동양의 과학: 그 이분법을 넘어서 임종태 /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 4.27 |
| 미디어와 언론: 연결에서 파열로 이상길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 6.8 |
| 놀이의 죽음: 첨단기술 시대의 노동과 놀이 손화철 / 한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6.15 |
| 인공지능과 미래 예측: 판단하는 인간, 예측하는 기계 전준 /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6.22 |
| 유죄와 무죄: 그 연약한 구분 김기창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6.29 |

공연

Space111

| | |
|---|-----------|
| 연극 모어 라이프 More Life 작. 로런 무니 & 제임스 예이트먼(Lauren Mooney & James Yeatman) 번역. 김수아 / 연출. 민새롬 / 출연. 공지수 김용준 마두영 이윤재 이주영 이진경 | 4.29-5.17 |
| 연극 원칙 Principle 작. 귀용캉(郭永康) / 번역. 장희재 / 각색. 강훈구 / 연출. 이준우 출연. 박현숙 오용 박종태 김현진 김혜령 | 5.27-6.14 |
|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I Am My Own Wife 작. 더그 라이트(Doug Wright) / 번역·드라마터그. 김기란 / 연출. 강량원 출연. 지현준 백석광 | 6.24-7.12 |

전시

두산갤러리

| | |
|--|----------|
| 3개국어 The Multilingual 참여작가. 김익현 Gim Ikhyun 임영주 IM Youngzoo 정서영 Chung Seoyoung 조은영 Choey Eun Young Cho | 6.24-8.1 |
|--|----------|

원칙

Principle

by Kwok Wing Hong



접근성 사항

휠체어석

안내보행

문자소통

한글자막
해설

음성소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시놉시스

“제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장이 부임하면서 제정한 일련의 교칙이 학생과 선생님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교장은 절차와 규칙을 중시하며 학교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지만, 자유로운 학풍의 학교를 이끌어왔던 교감과 갈등을 겪게 된다. 교장과 교감의 대립이 커져가는 가운데 학교 분위기는 점차 나빠져만 가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게 된다.

원칙을 세우려는 교장, 자유로운 학풍을 지키려는 교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교육일까?



음성 안내

작가 노트

〈원칙〉을 쓰게 된 계기와 작품을 통해 다루고자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원칙〉은 2015년에 집필했습니다. 원래는 홍콩공연예술아카데미(HKAPA) 재학 시절 과제로 썼던 작품입니다. 제 모교에서 실제 있었던 인사 교체 갈등에서 영감을 받아 썼습니다. 다만 이 작품을 쓰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위기상황을 통해 더 깊은 명제를 파헤쳐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가치관에 대한 논의, 성장과 삶에 대한 신념의 충돌, 그리고 교체입니다. 대본 속 갈등은 주로 대사의 힘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관객들은 지루하지 않게 몰입하며 수업을 듣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를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교육 원칙에 대한 고민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교육과 성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홍콩의 교육 제도는 수십 년에 걸쳐 ‘주입식 교육’에서 ‘교양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원칙〉에서 진짜 다루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제도의 표피를 벗겨내고 학교를 하나의 축소된 사회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시스템은 평가를 통해 수치화된 성적을 쉽게 부여할 수 있지만,

인간됨의 가치는 평가하거나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권력이 바뀔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학교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온전히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작가님에게 ‘원칙’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떠올리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무인도에 단 두 사람만 있어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은 정확히 계산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경계가 생깁니다. 저에게 ‘원칙’이란 이러한 가치관이 충돌할 때의 판단의 근간입니다. 그것은 흑백으로 나뉘는 경직된 규칙이 아니라, 제도와 인간적인 정 사이에서 ‘원칙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인생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잖아요. 극 속에서는 현실에서는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원칙’이고, 더 나아가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어떤 정답도 제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객들에게 하나의 완전한 ‘사유의 여정’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홍콩 초연 이후 관객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고, 이는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관객 각자가 현실에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어떤

선택을 해왔든, 극 속에서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인물을 발견하고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치화와 경쟁이 지배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생각하기’, ‘성찰하기’, ‘관용하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각자가 자신의 정의를 지키려 할 때,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고립된 섬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홍콩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한국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록 <원칙>이 표면적으로는 홍콩의 교육 제도와 제 모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가치관에 대한 탐구와 진리에 대한 추구는 국경과 지역을 초월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교육 제도가 있고, 제도와 인성 사이의 힘겨루기는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저는 한국의 관객들도 홍콩의 관객들처럼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이 사유의 여정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한 그루의 나무가 또 한 그루의 나무를 흔들고, 한 점 구름이 또 한 점 구름을 밀어내고, 하나의 영혼이 또 하나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 작품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사고방식의 충동을 지나온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끌어안고 진리를 추구하며, 언제나 인간의 선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역. 장희재



© Lee Wai Leung

작 귀용강 郭永康

연극
<진실한 거짓말> <원칙> 외

수상
2024 베이징 신징바오 올해의 신예연극 선정 <원칙>
2022 아시아 아카데미 창의대상 홍콩지역 최우수작품상 <원칙>
2019 제11회 홍콩 소극장상 최우수희곡상 <진실한 거짓말>

<원칙>이 한국의 학교로 옮겨 오기까지

홍콩에서 출발한 <원칙>은 한국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새롭게 쓰인다. 하나의 교칙을 둘러싼 갈등은 곧 학교의 질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교육의 목적,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원작의 문제의식을 지키면서도 한국 관객이 자기 현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번역과 각색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롭게 조율했을까. 번역가 장희재와 각색가 강훈구에게 <원칙>이 한국의 학교로 옮겨 오기까지의 과정을 물었다.

<원칙>은 하나의 교칙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학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번역과 각색 과정에서 이 작품의 핵심 질문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느낀 장면이나 인물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장희재

번역 과정에서 특별히 오래 고민했다기보다, 핵심 질문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대사는 이 대사를 꼽고 싶네요.

“제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로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을 극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사유의 장을 열어주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언어적으로는 ‘생각’과 ‘손들다’라는 표현은 포함된 것이 참 좋아요. 두 표현은 관객을 ‘구경꾼’에서 ‘사유하는 사람’으로, ‘방관자’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이 대사가 발화되는 순간, 무대를 바라보던 관객의 시선이 방향을 틀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수행성이 매우 강한 대사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꼽아도 될까요?(웃음)

“한 그루의 나무가 또 한 그루의 나무를 흔들고, 한 점 구름이 또 한 점 구름을 밀고, 하나의 영혼이 또 하나의 영혼을 불러온다.”

번역자로서 약간의 변칙(?)을 쓴 구절인데요. 우리말에서는 숫자를 세는 단위가 보통 명사 뒤에 오거든요.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이렇게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명사 앞에 와요. 한 잔 커피, 한 그릇 밥, 이렇게요. 어색하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한국어 번역이지만, 일부러 단위사를 명사 앞에 오게 했어요. 일부러 어색한 어순을 택한 거죠. 약간 서걱거리는 느낌이 오려면 그 이질감 때문에 어구에 더 집중하게 만들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영향력과 전염성이 더 잘 전달된다고 생각했어요.

강훈구

교장 이연조의 대사 “원칙은 원칙입니다.”와 교감 강정구의 “학칙에도 ‘유도리’가 있어야죠.” 한국 사회에서 아주 잘 쓰이는 두 주장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두 주장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연조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곳입니다.” 강정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역시나 이 두 주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객 한 분 한 분이 그 대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원작의 문제의식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 관객이 자기 현실과 연결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신경 쓴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장희재

이 작품은 무대화되는 기쁨도 누리고 있지만, 책으로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출판본과 공연본은 아주 미세하지만 번역자의 호흡이 조금 다릅니다. 출판본은 표준화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 작품을 연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작품 자체를 감상하기도 하지만, 홍콩 사회를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다른 홍콩의 제도, 호칭, 입시, 격언 등은 최대한 역주를 달아 풀이했어요. 강훈구 작가가 그 의미망을 깨알같이, 찰떡처럼 한국화해내서 각색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작을 섬세하게 해독해 낸 각색본을 보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만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는 한국적 상황 언어를 더 많이 고려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어투는 한국의 비속어나 유행어와 같은 편한 말들을 활용하려고 애썼고, 선생님들의 말투는 교수 회의나 학과회의 상황들을 많이 반추해서 번역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대화는 저의 학창 시절도 많이 떠올렸고요.

강훈구

홍콩의 학교에서는 동아리를 여러 개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양준이 된 링즈의 경우 마라톤부도 하고 학생신문 기자도 하고, 선도부장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대립들을 학업 외 활동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강점이 있는 자유로운 학풍의 신도시 1기 고등학교가 출생을 저하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옮겨왔습니다.

사실 수월성 교육 대 자율형 교육의 갈등은 한국 교육 현장에서 오래된 논쟁입니다. 성적과 대학 진학률로 학교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쪽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험 자체가 교육이라고 믿는 쪽, 이연조와 강정구의 대립은 바로 이 두 입장을 각각 체화한 사람들의 충돌입니다. 어느 쪽도 학교를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학교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 갈등은 홍콩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의 학교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원작의 문제의식을 역지로 한국화하려 하기보다는, 한국의 학교 현실 안에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맞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각색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원칙’은 공정함을 위한 기준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사람을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힘으로도 작동합니다. 번역과 각색 과정에서 이 양면성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장희재

제가 크게 손댄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작이 이미 균형을 잘 잡고 있었거든요. 다만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를 구분하고자 어투를 나누긴 했어요.

강훈구

각색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두 사람의 균형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옮겨나 그른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이 작품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무너져버립니다. 원작에서 출발하되, 두 사람이 각자의 논리 안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면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각색의 핵심이었습니다. 둘 다 학교를 위한다는 진심을 가지고 있고, 그 진심이 충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원칙〉의 인물들은 모두 학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은 서로 다릅니다. 번역과 각색을 거치며 이 작품이 한국의 학교 현실과 맞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느꼈나요?

장희재

번역이 무언가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원작에 이미 충분한 고민이 담겨있고, 그것을 잘 드러냈다면 제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저보다는 원작에 있는 의미망을 굉장히 촘촘히 한국사회의 의미망으로 전환한 강훈구 작가가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은 각색 과정에서 교감의 캐릭터가 조금 변했다고 느껴요. 원작에서 교감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듯, 스스로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각색본에서는 본인처럼 살지 말라고 학생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국적인 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현실감 있는 인물이 된 거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를 저도 한번 여쭙 보고 싶었어요.

강훈구

연극에서는 운동장에서 교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교칙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공놀이를 금지한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붙이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요.

저는 좋은 연극은 질문을 하는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다르지 않게 질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이연조와 강정구 중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학교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번역 장희재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한중연극교류협회 부회장

연극

〈최후만찬〉 〈만약 내가 진짜라면〉 〈광인일기〉 외

각색 강훈구

공놀이클럽 대표

연극

〈클뤼타임네스트라〉 〈이상한어린이연극-오감도〉 〈로켓 캔디〉 〈무화과〉 외

수상

- 2026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선정
- 2025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제3회 서울예술상 심사위원 특별상
제 61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수상
- 2024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7’ 선정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선정

연출 노트

연극 〈원칙〉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비추는 작품입니다. 이야기를 한국의 학교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옮겨오면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사립 고등학교라는 설정 안에서 인물들의 논리를 다듬었고,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법과 절차, 수치화된 성과를 통해 학교의 생존과 면학 분위기를 확립하려는 냉철한 원칙주의자 신임 교장 이연조와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생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온 마라톤부 지도 교사이자 학생들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중시하는 교감 강정구. 극은 이 두 인물의 가치 충돌을 중심으로 팽팽한 대립을 그려냅니다. 여기에 저마다의 신념을 가진 주변 인물들이 더해지며 갈등은 더욱 입체적으로 교차합니다. 잦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강압적인 지시에 직접 맞서는 학생부장 천성일, 일방적인 교칙 개정과 교감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분노하며 사랑하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학생회장 김라엘, 그리고 ‘대의’를 위해 무고한 양치기를 희생시켜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딜레마 사이에서 고뇌하며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고자 고민하는 학생신문부장 양준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사유의 지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교육관의 차이를 넘어, “지금 당신은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원칙〉의 무대는 인물들의 갈등과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구성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대를 구성하는 것은 오직 인물들의 위치와 거리 변화, 그리고 수직·수평의 공간 구도뿐입니다.

무대 위에서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던 인물들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선’을 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거나 그 경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나아가 이 선들이 겹겹이 모여 만들어 낸 갈등의 ‘면’을 무겁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인물들의 어긋난 시선과 대칭적인 배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의 평행선을 시각화하며, 억압과 개방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냅니다. 또한 관객을 ‘학부모’와 ‘참관인’으로 참여시키는 연출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당신은 누구의 입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객석에 흐르는 여론은 그 자체로 극의 일부가 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을 감각하게 할 것입니다.

연극 〈원칙〉에서 ‘배드민턴’과 ‘셔틀콕’은 작품의 본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배드민턴은 본래 파트너와 긴밀하게 호흡하며 셔틀콕을 주고받아야

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극 중 인물들이 나누는 언어는 ‘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의 코트에 가닿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는 단절된 경기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대립과 소통의 어려움을 그리면서, 결말에서 작위적인 화해를 맺는 것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팽팽하게 부딪혔던 가치관의 대립은 극장을 넘어 공연이 끝난 뒤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의 논쟁이 객석으로 이어져 공연장을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렐리’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연출 이준우

서울시극단 단장

연극

〈빅 마더〉 〈하얀충동〉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바닷마을 다이어리〉 〈지킬앤하이드〉 〈비Bea〉 〈붉은 낙엽〉 〈파우스트〉 〈왕서개 이야기〉 〈수정의 밤〉 〈아룩과 루시〉 〈포트폴리오〉 〈무순6년〉 〈못〉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버스 기다리는 남자〉 〈바다 한가운데서〉 〈광인들의 축제〉 외

뮤지컬

〈홍련〉 〈프라테르니테〉 〈동네〉

수상

2025 제46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원칙〉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 〈홍련〉
2022 제58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신인연출상 〈붉은 낙엽〉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21 제57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왕서개 이야기〉





<원칙>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학교라는 작은 민주주의에서 듣기, 견디기, 함께 살기를 생각하다

학교에는 원칙이 있다. 등교 시간에도, 복장에도, 운동장 사용에도 원칙이 있다. 휴대전화를 어떻게 쓸 것인지, 쉬는 시간에는 어디까지 뛰어도 되는지, 체험학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교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학부모의 요구는 어디까지 학교의 말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도 원칙이 있다. 학교는 원칙 없이 지속될 수 없다. 원칙이 없으면 학교는 목소리 큰 사람, 오래된 관행, 순간의 감정, 책임 회피의 기술에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학교장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것은 원칙의 강도나 개수가 아니다. 그 원칙이 누구의 하루 위에 내려앉는지, 누구의 시간을 줄이고, 누구의 목소리를 살리며, 누구의 두려움을 덮어버리는지 묻는 공동체의 힘이다.

연극 <원칙>은 이 익숙한 학교의 언어를 낯설게 되돌려준다. 새로 부임한 교장은 교칙을 세운다. 절차와 규칙을 통해 학교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교감은 자유로운 학풍과 학생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 학생들은 그 사이에서 단순히 반발하는 존재로 머물지 않는다. 묻고, 쓰고, 모이고, 흔들린다. 같은 사건을 두고 교장은 질서를 말하고, 교감은 관계를 말하고, 학생은 자신의 시간을 말한다. 하나의 교칙이 학교 전체를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칙은 학교가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드러내는 거울이다. 학생은 관리되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학교의 삶을 함께 해석하고 책임지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무대 위에서 천천히 열린다.

파커 J.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에서 민주주의를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주의의 심장은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세계 안에서 부서지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되내인다. 차이를 피하지 않는 마음, 긴장을 견디는 마음, 상처를 숨기지 않는 마음,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원칙>은 교칙을 둘러싼 갈등극이 아니라, 학교라는 작은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프게 뛰는 이야기이다. 교장실의 문 앞에서, 교무회의의 침묵 속에서, 학생신문의 문장 안에서,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학생의 10분 쉬는 시간 속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시험받는다.

이 작품 앞에서 나는 학교장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연조 교장을 쉽게 비판할 수는 있다. 너무 절차를 믿고, 너무 빨리 판단하며, 학교의 오래된 기억을 충분히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자리는 나와 무관한 자리가 아니다. 학교장은 원칙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들어야 하며, 교사의 피로를 살피야 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때로는 단호하게 결정해야 하고, 때로는 다수가 불편해하더라도 원칙을 붙들어야 한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 경계하는 민주주의의 상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 두려움이 커질 때 사람은 서로를 듣기보다 통제하려 하고, 불안이 깊어질 때 공동체는 대화보다 규칙에 기대려 한다. 두려움은 때로 원칙의 옷을 입는다. 학교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누군가 다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원칙의 언어로 나타난다.

그러나 원칙이 두려움에서만 태어나면,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기보다 사람을 침묵하게 한다.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곧 속의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공동체가 납득했다는 뜻도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침묵은 동의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일 수도 있다. 학교의 회의실에는 종종 말하지 못한 말들이 남는다. 반대하면 불편한 사람이 될까 봐, 질문하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느껴져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 파머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마음은 바로 이 침묵 앞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회의록의 존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안전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수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절차가 된다.

그렇다고 강정구 교감의 세계가 완전한 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학생을 믿는 마음은 교육의 가장 깊은 뿌리이지만, 믿음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자유로운 학풍은 아름답지만, 자유가 책임의 구조를 갖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방치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선의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고, 따뜻한 관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교육적 판단은 어렵다. 원칙만으로는 차갑고, 관계만으로는 불안하다. 좋은 학교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원칙과 관계가 서로를 비추도록 만드는 곳이다. 믿음은 규칙보다 따뜻하지만, 규칙보다 어렵다. 민주주의 또한 그렇다.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품은 채 함께 건디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학생들이다. 학생회장 김라엘과 학생신문부장 양준은 학교가 정한 규칙의 대상이 아니라, 그 규칙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이다. 물론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성급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 미성숙성이 교육의 이유이다. 학생이 아직 배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학교의 삶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학생이 자기 목소리를 공적 언어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민주주의의 장소이다. 파머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말하는 시민의 용기는 거대한 광장에서만 길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교실에서, 학생회에서, 학교신문에서, 친구들과 주고받는 망설이는 말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학생자치는 행사가 아니라, 학생이 학교의 규칙과 문화를 해석하고 제안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론장이다.

나는 혁신학교 공모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원칙이 명령문이 아니라 사회 계약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생각한다. 사회계약으로서의 원칙은 학생에게 “따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것을 함께 약속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교사에게 책임만 요구하기 전에 “이 책임을 학교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를 묻는다. 학부모에게 협조만 요청하기 전에 “이 불안을 어떤 언어로 함께 해석할 것인가”를 묻는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장은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다. 갈등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파괴가 되지 않도록 말할 자리와 들을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촉진자이고, 때로는 지원자이며, 때로는 공동체가 잊은 약속을 다시 꺼내 놓는 사람이다. 파머의 언어로 말하면, 학교장은 민주주의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도와 관계 사이에 작은 숨 쉴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교의 원칙은 벽이 될 수도 있고 난간이 될 수도 있다. 벽은 사람을 가른다. 그리고 난간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든다. 벽은 안과 밖을 만들고, 난간은 위험한 길을 함께 건너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적 원칙은 벽이 아니라 난간이어야 한다. 학생의 시간을 듣고,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학부모의 불안을 해석하고, 학교장의 책임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나누는 난간이어야 한다. 원칙은 공동체를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부서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원칙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원칙을 느슨하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원칙이 사람의 삶을 더 깊이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칙〉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학교에서 원칙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그 원칙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목소리와 시간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원칙은 정말 공동체의 마음을 통과했는가. 민주주의의 심장은 거대한 제도 안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교장실의 문 앞에, 교무회의의 침묵 속에, 학생신문의 문장 안에,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학생들의 짧은 쉬는 시간 속에 있다. 학교 민주주의는 원칙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원칙을 함께 묻고, 함께 고치고,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은 원칙은 교육이 아니다. 원칙의 마음이 살아 있을 때, 학교는 다시 작은 민주주의의 장소가 된다.





박현숙
이연조 역

연극
〈줄리엣〉 〈이 불안한 집〉 〈저물도록 너, 어디 있었니〉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가벼운 스님들〉 〈늪어가는 기술〉 외



오용
강정구 역

연극

〈화이트래빗 레드래빗〉 〈나와 할아버지〉 〈바닷마을 다이어리〉 〈와이프〉
〈셰익스피어 인 러브〉 〈광부화가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외

방송

〈신병 1,2,3〉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언더커버 하이스쿨〉
〈수사반장 1958〉 외

수상

2025 제46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원칙〉

2002 제2회 서울공연예술제 신인상 〈이발사 박봉구〉



박종태
천성일 역

연극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황 소리 한번 없이 흐느낌으로〉〈맥베스〉
〈이 불안한 집〉〈시련〉〈신의 막내딸 아네모네〉〈자베트〉 외



김현진
양준 역

연극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 〈매달린 집〉 〈맥베스〉 〈갈매기〉 〈죽음들〉
〈청년 윤봉길〉 〈엄마 이야기〉 〈퓨전 심청전〉 〈추몽〉 외

수상

2025 제46회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원칙〉

2019 제12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젊은 연극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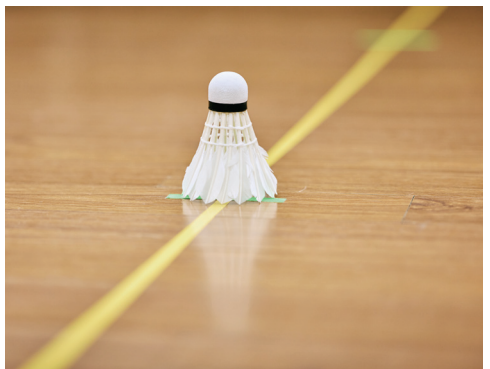
김혜령
김라엘 역

연극

〈환한 밤〉 〈투빌리언 비츠〉 〈에스메의 여름〉 〈광!〉 〈햄릿 재판〉 〈조조〉
〈적의 화장법〉 〈한평의 땅〉 〈거룩한 함성〉
〈어느 날 납작해진 아이와 끝으로 달려가는 할머니〉 외









연습 노트

원칙: 어떤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표준국어대사전]

연극 <원칙>은 제목에서부터 명확함을 지닌다. 딱딱해 보이지만 동시에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명확한 제목 아래, 우리는 무대 위에 어떤 풍경을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하며 **우직하게**, 때로는 **침예하게** 연습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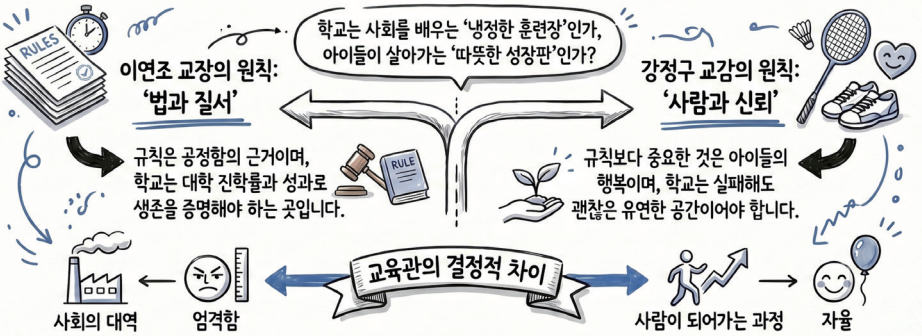
학교를 학교답게

<원칙>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정의’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각기 다른 철학과 가치관을 지닌 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들이 가진 방향성이 충돌하며 갈등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 갈등의 이유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서로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방향성이 충돌하는 이유는 결국 학생들을 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본질에는 모두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위한”이라는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원칙>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교육 철학이 격돌하는 사회의 축소판이자 쟁점의 장으로 묘사된다.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며 제정한 일련의 교칙은 학생과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교장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절차와 규칙을 중시하며 학교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하지만, 자유로운 학풍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온 교감과 갈등을 겪게 된다.

교장과 교감 외에도 모든 인물은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창작진과 배우들은 작품 속 갈등과 인물의 가치관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작품은 방대한 대사량을 가지고 있다. 행동과 동선, 무대적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세함이 필요한 것은 대사다. 인물의 말은 결국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작품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학교라는 전쟁터, 두 가지 '원칙'의 충돌



인물들이 왜 갈등을 겪는지, 또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전달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연습실에서는 인물들의 말이 무대 위에서 살아 존재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우직하게 반복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11개의 장면, 소재목을 이정표로

<원칙>은 총 11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면마다 소재목이 존재한다.

이 작품에서 소재목은 단순한 장면 구분을 넘어, 극이 전개되며 심화되는 가치관의 충돌과 상징적 소재, 그리고 교육과 정의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연습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는 다시 소재목을 바라보며 장면과 작품의 궤적을 되짚어 가곤 했다. 이 작품에서 소재목은 각 장면이 다루는 핵심일 뿐 아니라, 사건과 관계를 관통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배우와 창작진에게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 제1장: 새로운 교칙
- 제2장: 제안
- 제3장: 학생신문
- 제4장: 마라톤
- 제5장: 삼자 회담(삼자 회의)
- 제6장: 국어과(중문과)
- 제7장: 원칙
- 제8장: 인성
- 제9장: 공개 간담회(청문회)
- 제10장: 배드민턴
- 제11장: 교육

** 괄호 안 표기는 각색 전 번역본에 사용된 제목이다. 각색 과정에서 배경이 바뀌며 일부 표현 또한 수정되었지만, 원작을 기반으로 한 번역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셔틀콕과 배드민턴

이 작품에서는 배드민턴과 셔틀콕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등장한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관객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를 **참여하게** 논의해 왔다.

교감 강정구는 작품 초반부터 이연조에게 “배드민턴은 안 치세요?”, “언제 저랑 한 게임 하시죠.,” “배드민턴이나 한 번 치시죠?”, “배드민턴 치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와 같은 말을 건넨다. 강정구가 교장 이연조에게 끊임없이 배드민턴을 제안하는 것은, 경직된 원칙의 공간인 교장실 안에서 인간적인 이해와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이외에도 작품에서는 배드민턴이 계속해서 언급된다. 이는 단순한 소품을 넘어, 인물들 간의 관계와 교육 철학을 시각화하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작동한다. 배드민턴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호흡을 맞춰야만 성립되는 랠리를 통해, 소통과 유연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셔틀콕 또한 마찬가지다. 셔틀콕은 배드민턴 경기 속에서 나와 상대 사이를 오간다. 셔틀콕을 주고받지 않으면 랠리는 이어질 수 없다. 작품 속 셔틀콕은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달을 상징하기도 한다.

제작 노트: 초연에서 재연으로의 변화

2025년 초연 이후, 2026년 현재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다시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초연에서는 이연조와 강정구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고, 사건의 흐름을 관객이 보다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무대적 선택들을 이어 나갔다. 반면 이번 재연에서는 사건의 진행과 더불어 인물들의 심리 변화와 관계의 밀도를 더욱 세밀하게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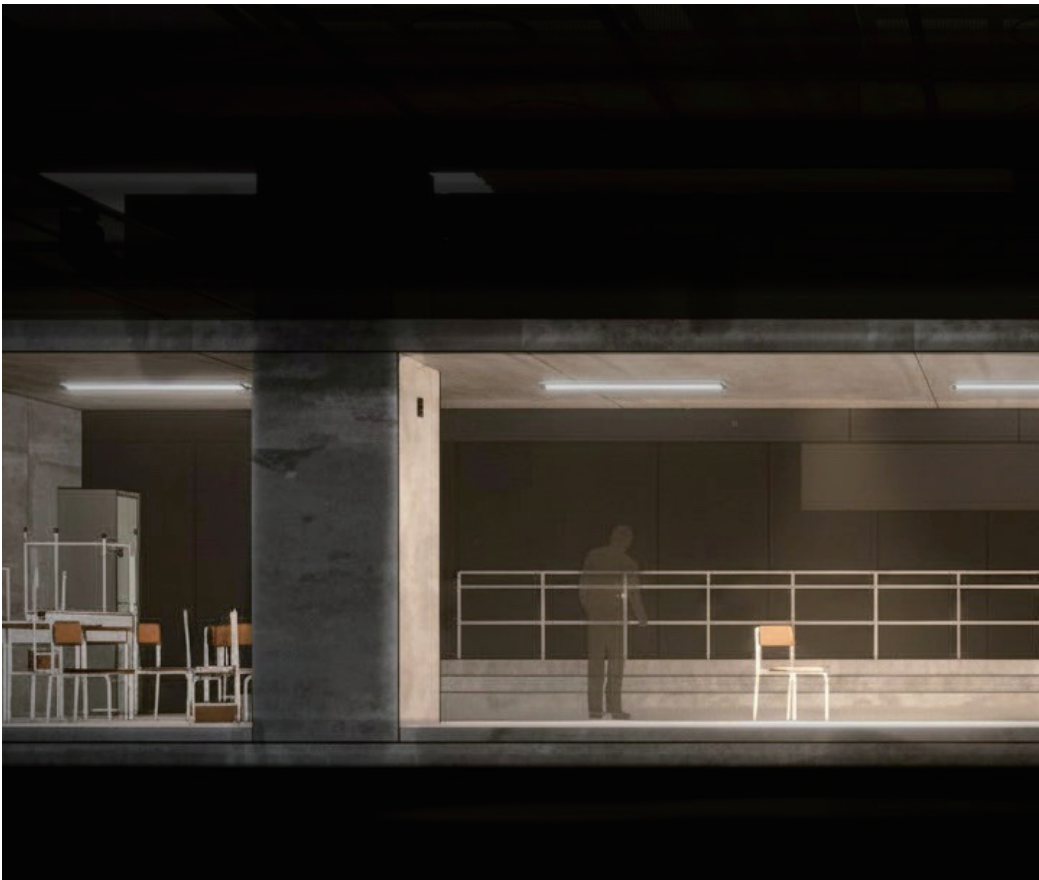
배드민턴에 비유하자면, 초연이 1세트였다면 재연은 2세트다.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익숙하다. 익숙하기에 자신감은 생기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경계하려 한다. 동시에 그 경계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초연의 배우들과 창작진은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였다. 우리는 ‘네트가 없는’ 연습실에서 끊임없이 숨 가쁜 랠리를 이어 가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치열하게 셔틀콕을 주고받으며, 그 셔틀콕을 관객에게 건네는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무대디자인 노트

본 무대는 학교라는 장소를 기점으로, 공간의 내·외부를 동시에 공존시킴으로써 극의 유기적 흐름을 유도하는 구조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익숙한 학교의 오브제들은 변형된 구조 안에서 전경과 후경, 안과 밖의 경계를 나누기도 하지만 때때로 경계를 해체하며 극의 시공간을 유연하게 실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몇 해 전 번역된 <원칙> 대본을 받았을 때 아주 흥미로웠던 점은, 대사 중 노랫말을 인용한 짧은 대화들이 있었는데, ‘장국영’과 ‘알란 탐’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들이었다.

짧은 대화 속에 지나가는 노랫말이라기엔 내 기억 속 장국영이라는 사람의 무게가 여전히 가볍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살았던 시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무작정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보려 오랜만에 1980년대 홍콩 가수들의 노래를 죄다 수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 주옥같은 음악들이 쏟아졌고, 그 시절 그곳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알고 있다.

“왜 갑자기 대화 중에 노랫말이 나왔을까?” 생각하던 중, 문득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역시 가끔 지인과 대화하다 ‘설득을 위한 노랫말’을 사용하곤 한다. 보통은 소통이 쉽지 않을 때 그러곤 하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노랫말이 더 설득력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말이 힘을 갖게 된 데에는 그 문장이 수없이 불리고 들리고 공감되어 온 ‘노랫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대 위 배우들의 어떤 대사들이 ‘노랫말’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반주’를 붙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음악 작업을 시작했다. 어쩔 땐 반주 없이 노랫말만으로도, 어쩔 땐 반주만으로도 장면과 어울릴 때가 있었다.

무대 위 스피커를 통해 관객과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내, <원칙>이라는 작품은 ‘소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내게 던지고 있었다.

두산아트센터 2026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예술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5.10.30-2026.1.25

연극 **빵야** 3.3-5.24

연극 **플리백** 6.19-9.6

뮤지컬 **햇미플라이** 26.10.6-27.1.3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5

연극 **개기일식 기다리기** 1.15-1.17

연극 **경계넘기: 신진순박소영박뽀 Part.1** 1.22-1.24

연극 **공룡과 공룡동생** 2.5-2.7

다원 **곡예사훈련** 2.5-2.7

연극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 3.5-3.7

연극 **나의 땅은 어디인가** 3.12-3.14

여성국극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3.19-3.21

연극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3.26-3.28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연극 **모어 라이프** 4.29-5.17

연극 **원칙** 5.27-6.14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6.24-7.12

공동기획

비밀 언덕 | 연극 **99%천재일기** 4.4-4.19

돌꽃이 | 연극 **경성의 고독한 미식가들** 7.25-8.9

DAC Artist

연극 **분주 신작** 9.2-9.20

연극 **이경현 신작** 10.28-11.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강보름 신작** 11.25-12.13

시각 예술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6 1.28-3.7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2025 결과보고회 3.-4.

DCW 전시 공모 기획전: 후모어스 4.22-5.3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6.24-8.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 정여름 개인전 8.26-10.17

두산갤러리 기획전 12.9-27.1.30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7-2.13, 7.-8.

두산인문극장: 강연 4.6-6.29

두산아트스쿨: 미술 4.9-4.30, 11.5-11.26

두산아트스쿨: 공연 8.18-8.21

두산아트센터 투어 9.21-9.22

Studio DAC: 아트 클래스 3.-12.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5-1.22

두산아트랩 공연 5.4-5.28

시각 예술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8-5.8

두산아트랩 전시 9.29-10.9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1.17-11.27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원칙

Principle

By Kwok Wing Hong

5.27-6.14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극단 배다

작 귀용강(郭永康)

번역 장희재

각색 강훈구

연출 이준우

출연 박현숙 오용 박종태 김현진 김혜령
(목소리 출연 김윤후)

조연출 서진호

프로덕션 매니저 임예지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현세

상주 무대감독 김종민

무대크루 황석원

무대디자인 박상봉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김윤지

무대제작 애플(APIC) (대표 전종혁)

기술감독 최세현

미술팀 이현정 채근주 이주는 구본주 김나은 이율미

제작팀 편운장 최병조 김혜성 유철환 문병주 문창혁

조명디자인 정유석

조명디자인 어시스턴트 김은빈

조명오퍼레이터 유영광

조명크루 고두영 유보민 임혜성 박자연 전준우 김민지
허정현 이준수 박재욱

의상디자인 EK

의상디자인 어시스트 최새봄

의상제작 이케이코스튬(EKCOSTUME)

음악감독 채석진

음향디자인·음향시스템엔지니어 이현석

음향크루 김세영 박산결

음향오퍼레이터 서진호

분장디자인 정지윤

분장작업 ZAMILUN

분장진행 김혜원 한지연

접근성 기획·운영 플랫폼안녕(대표 이청)

자막해설디자이너 이청

자막해설오퍼레이터 이우람

영상기술 이효진 김현희

그래픽디자인 포인터스(Pointers)

사진(프로필·설정·연습·공연) Studio AL(대표 김윤희)

사진(관객과의 대화) 스튜디오1024(대표 이재호)

영상(공연 실황)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SNS콘텐츠(이미지) 팡팡팡그래픽실험실

SNS콘텐츠(영상)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캠픽처스(대표 최태연)

인쇄 으뜸프로세스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박지희 김지영 한나래

티켓 이연서 김지은

사무 유은우 조소미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전지희 이정민 장보미 홍서희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기술총괄 황동철

음향 신승욱 류호성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지산

무대 박소연 김태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김예지 이준 최지인

하우스 안내원

권현수 김경미 김상윤 김서영 김수빈 김수아 김진형
김태희 문준아 심채민 안승환 오승현 이나예 이수민
이승훈 이하은 이현지 임소은 전윤희 조수빈 차승준

극단 배다(대표 장한새)

우리 안에 배어 있는 이야기들, 이 세계의 아픔과 인간성을 탐구하다.

2017년 창단한 ‘극단 배다’는 잊고 지나쳐 온 인간성과 내면에 흔적을 응시하며 가슴에 깊이 배일 수 있는 연극을 만듭니다.

본 공연은 2024 ‘제7회 중국희곡 낭독공연’에서 소개되었습니다.

